

한국특허정보원, 신 CI·VISION 선포식 개최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유영기)이 창립 10주년을 맞는 2005년을 세계적인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이에 대한 실천의지를 담은 'KIPI 신(新) CI·VISION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금번 신규 CI 도입을 통해 보다 신선하고 글로벌한 이미지 변신으로 미래지향적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중장기 비전으로 '고객과 함께 세계 일류수준으로 성장하는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한국특허정보원 비전의 의미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신 CI·VISION 선포식'에 참석한 내빈들.

서비스 주체이자 한국특허정보원의 존립기반인 고객을 모든 서비스의 중심에 두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발굴하며, 양적·질적 내실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시대를 향한 세계 초일류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도약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최근의 대한민국 경영 품질 대상 수상, ISO9001 인증 획득 등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보여준 숨은 저력은 앞으로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 주도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신 CI·Vision 선포는 세계적인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CI와 비전 선포를 계기로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는 특허정보 활용·확산을 위한 중추적 핵심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을 밝혔다.

특허청, 디지털 디자인 보호 본격화

오는 7월부터 웹상의 영상 그래픽은 물론 컴퓨터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명조체·바탕체·고딕체 등 글자체 디자인을 비롯한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디자인 보호제도 혁신을 골자로한 '의장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본

격 시행한다고 지난 1월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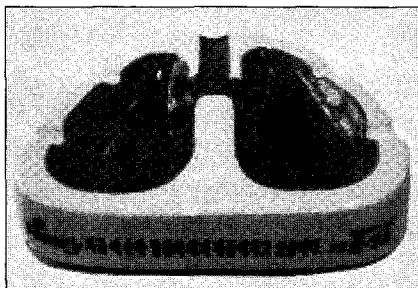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의 일부만을 단순히 바꾸거나, 이미 알려진 디자인들을 단순히 조합하는 등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디지털 글자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 창의적인 한글 글

자체 개발환경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아이콘 등 영상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시작된 이후 디지털 시대를 겨냥한 디자인 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제품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폐 타들어가는 모양 '금연재떨이', 청소년들이 개발



폐가 타들어가는 모양의 재떨이(왼쪽)를 개발,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송예찬, 예준 형제(오른쪽).



폐가 타들어가는 모양의 재떨이로 금연 캠페인을 벌이는 기독 청소년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송예찬(20·미국 일리노이대 경영학부1), 예준(19·미국 버지니아주 매클린고2) 형제가 그 주인공이며, 자녀들이 먼저 나서서 가정의 행복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근 청소년 가정문화 NGO 'Y-홈키퍼스(www.yhomekeepers.org)'를 만들었

다. 이들은 첫 행사로 지난 2004년 12월 서울 명동 밀레오레 야외무대에서 샘여성병원과 가정 NGO 하이패밀리의 후원을 받아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자신들이 제작한 금연 재떨이를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처음 선보인 금연 재떨이는 시민 3백여명의 금연 서약과 함께 1시간 만에 동이 났다. 이 재떨이는 인터넷에 떠돌던 사진을 실물로 제작해 지난해 말 특허청에

의장등록까지 마쳤다.

이들은 '청소년 스스로 금연을 선언해야 하며 이제 부모들에게도 금연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재떨이를 부모와 친지들에게 선물하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신청을 받아 선착순 5백명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진돗개 친자감별법 특허 등록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 친자감별법이 특허 등록됐다. 지난 1월 3일 전남 진도군에 따르면 진돗개시험연구소와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이재일, 이정길 교수가 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마이크로새틀라이트 표지인자(microsatellite marker)를 이용한 진돗개 친자감별법'이 특허 등록됐다고 한다.

이 감별법은 개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친자감별법으로, 그동안 혈통관리 방법으로 이용해 온 혈액형 분석과 혈청 단백질 다형분석에 비해 정확도가 높고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방법은 혈액은 물론 머리카락 모근 화석이나 유골 등에서 소량의 DNA 재료만 있어도 이용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확성 면에서도 타 방법에 비해 월등하다.

이 방법이 특허 등록됨에 따라 근친교배에 의한 퇴화를 방지하고 특정 형질을 선택하는 것에도 이용될 수 있어 진돗개에 대한 체계적인 혈통관리와 신뢰성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 분쟁 해설서 'WTO 지재권 협정' 발간

외국 업체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한 국제무역 관련 해설서가 나왔다. 특허청이 지난 1월 13일 WTO체제 출범 10주년을 맞아 내놓은 'WTO 지재권 협정(TRIPS)'이 바로 그것. 이 책은 지난해 11월 일본 세관이 LG 전자의 PDP 제품을 통관 보류해 한·일 양국간 특허 분쟁의 빌미가 됐던 것이 바로 이 협정 51조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 금지'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상표권·저작권의 경우 모든 회원국에서 세관이 위반 여부를 판단토록 한 데 반해 특허권에 관해선 각 나라의 기준에 맡긴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산자부,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만 일본은 세관에 그 권한이 있다. 4조 '최혜국 대우 원칙'도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이 책은 지적했다. 다른 나라에게 주고 있는 특혜라면 WTO 회원국 누구에게라도 같은 특혜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 특허·의장권 등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허청은 '최근 선진국들이 통상 압력 수단으로 지적권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의 TRIPS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비쿼터스뱅킹 전문가 그룹 결성 추진

국내 유비쿼터스뱅킹 관련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추진하고 관련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선도해 나가기 위해 국내 금융계와 산업계 인사들이 하나로 뭉친다. 특허청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지식재산권 확보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오는 2월 초 'u뱅킹 전문가 그룹 결성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미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20여개 e뱅킹팀과 삼성SDS,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10여개 기업들이 참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u뱅킹 전문가그룹 회의를 통해 u뱅킹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분석 수행 및 대응 전략 수립, 개별 기업이 소유한 특허 공유·공동 라이선싱·해외특허 구입 등 중장기전략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 특허청 서호선 심사관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u뱅킹 기술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이 국제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u뱅킹 전문가그룹 결성을 추진 중이다'라며 '국제적 원천기술 특허 확보를 통해 국제지식재산권의 인큐베이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의력의 축제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2005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의 개막식 행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초·중·고 대표 학생들과 교사 및 임경배 한국학교발명협회 회장의 모습.

특허청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학교발명협회가 주관하는 '2005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가 지난 1월 14일(금)부터 15(토)일까지 양일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창의력올림피아드는 예선을 통과한 초·중·고 총 80개 팀의 5백60명의 학생들이 참가, 7명의 팀원 간 협동심을 바탕으로 사전에 주어진 문제(첨부)와 현장에서 주어지는 문제의 해결과정을 보여주면서 각 팀의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모험심을 마음껏 발휘 하였다.

특히 금년도 문제 중 하나인 '위대한 과학자와의 만남, TV 생방송입니다!'는 참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참가한 각 팀은 인류 문명사에 큰 영향을 끼친 과학자의 만남을 가정한 TV 대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표현하여야 하는데, 학생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볼 수 있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는 이 대회는 금년에 4회째를 거치면서 학생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의 중요한 교육적 방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창의력 카데일 쇼, 2족 로봇 Battle,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날, 체험 창의력 Zone'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어, 참가학생 뿐만 아니라 방학을 맞은 일반 학생 및 학부모 누구나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창의력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대회의 수상자 명단은 한국학교발명협회 홈페이지(www.kasi.org)의 학생발명행사 '대회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일 특허심사 간소화 위한 '특허심사 하이웨이' 구축

한국과 일본이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최근 오가와 히로시 일본 특허청장과 '제16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국 특허제도를 통일 화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지난 1월 9일 밝혔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어떤 발명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모두 특허출원했을 때 한 나라에서 특허 결정을 내리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심사해 특허를 조속히 등록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국내 특허심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한편 일본 특허취득이 매우 빠르고 쉬워진다.

IBM, 10년 연속 미국 특허 취득 1위 지킴다

IBM은 지난해 미국에서 3천2백88건의 특허를 따냄으로써 최대 특허 취득 기업의 자리를 10년째 지켰다. 지난해 IBM이 얻은 특허 가운데에는 인터넷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컴퓨터의 작업을 분산시키는 기술과 컴퓨터 소형화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1년에 연구개발비로 55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특허와 면허 사용료로 15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IBM의 빅 도노프리오 기술 및 제조 담당 수

석 부사장은 특허를 취득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으로 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특허 뉴스 서비스'의 그렉 아로니언 발행인은 '모든 특허의 질이 향상되기 전에는 어떤 회사가 얻은 특허의 총 숫자가 정말로 의미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며 'IBM이 특허를 가장 많이 얻었다고 해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허청, 통합보안관제센터 본격적인 가동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24시간 전자출원서비스 및 정부부처 최초의 재택근무제도 시행을 앞두고 특허넷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난 1월 11일,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해 6월부터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별도의 보안관제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가동에 대비해 왔다.

향후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전문운영요원들이 국내 지적재산에 관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는 특허넷 시스템을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안전하게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번 통합보안관제센터 개통으로 특허·출원·행정망에 분산되어 있는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IDS) 등 각종 보안시스템에 대한 통합관리기 이루어져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허청의 정보화 수준은 2003년 국가정보원 주관 정보보안 최우수기관, 2004년 중앙행정기관 정보화 수준 평가 1위에서 보여주듯 최고수준으로 평가받아왔으며 이번 개통으로 국내 지적재산권 정보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경보·대응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일본 히타치제작소, '발명보장제도' 개정

일본 히타치제작소가 사내 발명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절차 등을 규정한 새로운 '발명보장(報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히타치제작소는 일본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발명 보장액의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보장금 상위자를 사내에 공표할 계획이다.

히타치가 새로운 발명 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올봄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이 기업들에게 발명에 대한 대가를 보다 투명하게 지급토록 명시했기 때문이

다. 히타치가 일본 1위의 지적재산권기업임을 감안할 때 향후 다른 기업들도 발명 대가 지불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히타치의 새로운 보장제도는 발명보장 제정위원회의 설치, 발명자 보장내용의 구체적 게시, 보장 우선 순위자의 공개 등이 핵심이다.

히타치는 지난 2003년 미국에서 일본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연간 2천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발명 보수만으로도 연간 7억엔대를 지불하고 있다.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⑧

핵심 기술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핵심 연구인력에게 스톱옵션 혹은 고액연봉을 제시하여 인력과 첨단기술을 동시에 인수함으로써 유출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의 성과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핵심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사례 J社 (2004. 4.)

상무 서OO, 차장 등이 미국 Applied Materials, Inc.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LCD 플라즈마 화학증착 장치 제조기술을 유출을 시도하여 1조6천억 상당의 손해를 입힐 뻔 하였다.

사례 H社 (2003. 12.)

책임 연구원 우OO이 미국 사이프러스사로부터 전직을 약속받고 초집적 메모리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기술을 유출하여 4천70억원의 손해를 입힐 뻔 하였다.

사례 S社 (2003. 10.)

고객품질그룹장 정OO가 승진누락에 불만을 품고 PDP 다면취 제조공법에 대한 핵심기술을 디스켓에 복사하여 유출함으로써, 3조원 상당의 손해를 입힐 뻔 하였다.

사례 H社 (2003. 6.)

연구원 황OO가 중국 TRULY사에 기술 제공시 고액연봉을 약속받고, 휴대폰 컬러모듈 설계기술을 유출함으로써 4조3천억 상당의 손해를 입힐 뻔 하였다.